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 덮쳐라, CASH

lawhwshin on June 22, 2011

한인 이혼 소송 중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어려운 안건이 걸(?)으로 들어나지 않는 현금 보유 재산, 즉, CASH이다.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 의뢰인에게서도 주머니 속에 꽂꽂 공쳐둔 CASH 얘기를 듣곤 한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결혼 기간 중에 취득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부부간에 동등하게 분배된다. 누구 손에 있든, 어디에 있든, 현금 자산 CASH도 예외는 아니다. 단, 금융 기관에 예탁되어 있지 않은, 또 서류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CASH를 어떻게 이혼 법정으로 무사히 끌어 들여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보존하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에, 상대방 배우자가 현재 상당량의 CASH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될 경우, 임시 공판이나 최종 재판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송달(Notice)의 원칙을 건너 뛰고, Ex Parte Applica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수중에 있는 CASH를 FREEZE 시키는 법원의 응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법원으로부터 CASH를 덮쳐서(?) 증발하지 못하게 하라는 특수, 응급 명령을 받아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한인 이혼 소송을 10년이 훌쩍 넘게 해오다 보니, CASH에 대한 아슬 아슬한 기억도 많다. P씨네 부부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영업을 하며, 인권비를 줄이기 위해 부부가 밤낮으로 비즈니스에 붙어 일을 해왔다. CASH 수입에 대한 속 사정, 또 그간 모은 CASH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 왔는지는 머리 맞대고 같이 살 동안에는 둘 만이 공유했던 일급 비밀이었다.

하지만, 애인이 생겨서 앞 뒤 분간이 안되고 하루에도 이혼 얘기가 몇 번씩 튀어 나오는 판국에, CASH가 상당량 쌓여 있고 여차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증발할 우려가 있다는 현실에, 남편도 아내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밤 잠을 설친 날은 날이 밝는 대로 서로가 몰래 몰래 CASH가 밤새 별고 없으셨는지 확인까지 해야 하니, 안그래도 심기가 복잡한데 신경쓰고 챙겨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

이러기를 수일, 이제는 상황이 최악에 이르러 이혼이 기정 사실화 되니, 어쩌다 한 번 CASH 안부를 챙기기에 언제 누가 CASH를 들고 될 지 가능할 수가 없다. 이에 P씨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겠노라며 변호사를 찾아와 CASH에 대한 그간의 일급 비밀을 털어 놓는다.

CASH에 대한 액수와 정확한 위치를 듣고 나면 변호사로서 두 가지 법적 조언을 할 수 있으니, 첫째는, 당사자 본인이 증거 자료를 남기며 직접 CASH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차 후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둘째는, 법원의 응급 명령을 통해 변호사까지 개입되어

CASH 를 FREEZE 시키고 법원의 명령대로 처분하는 것이다. 솔직히 변호사로서 두 번째 방법은 신변의 안전 등 여러 가지가 걸끄러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는 알아야 하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은 해 주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

P 씨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자신은 겁이 나서 혼자서는 CASH 를 덮치지 못하겠고, 무조건 변호사가 법원의 응급 명령을 받아서 CASH 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이 아니라 때를 쓴다. 이에 변호사 또한 의뢰인의 케이스를 못 맡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선택이 있으나, P 씨의 경우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 다른 변호사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드디어 법원으로 부터 변호사 임회하에 CASH 를 FREEZE 하라는 응급 명령을 받았다. P 씨네 비즈니스에는 강도 때문에 권총이 있다는 P 씨의 말에 권총부터 임시 압류할 명령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가정 폭력의 전례가 없고 또 비즈니스 운영 상 재산 보호 차원에서 소지하고 있는 권총이라 압류할 수 없다 한다. 단, 변호사가 가정법 전문 회계사와 LAPD 를 동반해서 비즈니스 장소에 가서 CASH FREEZE 에 대한 법원의 응급 명령을 실행하도록 추가 명령했다. LAPD 의 차를 따라가면서도, 마음이 착잡했다.

결국, 비즈니스에서 CASH 가 노다지로 쏟아져 나왔고 LAPD 와 함께 가까운 은행으로 전 액 이송시켰다. P 씨는 마누라 일찍 죽으면 몰래 화장실 가서 웃는 격으로 좋아 죽겠고, 그 배우자는 시체 얼굴이 되었고, 나는 권총 생각에 눈썹 하나 까딱만 해도 머리카락이 쭈뼛 쭈뼛 서고, 동반한 회계사는 미국 욕을 연발하며 돈을 세고, 경찰관은 직업 바꾸어야겠다고 비아냥거리고.....

나는 그 날, 하루 종일 Back Mirror 를 보면서 운전했다. 변호사란 직업,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혼자 되뇌이며..... (끝)

\*본 기사의 저작권은 신혜원이 소유함을 명시합니다.

\*\*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인물 및 상황을 설정,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